문-안, 안만나나 못만나나

대선 2주 앞두고 회동 기미 안보여 '리더십 부재' 비난 여론

"정권교체 실패땐 서로 부담…조만간 만날 수도"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사퇴한 지 11일이나 흘렀으나 두 사람의 회동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후보 단일화를 위해 보름새 3차례나 단독회동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 중반 판세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으로 다소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회동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야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안 전 후보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후보가 회동을 통해 정권교체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안 전 후보께서 조만간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민주통합당 문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회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 후보 측 일각에서는 문 후보 측에서 후보 사퇴 결단의 가치와 정신을 살리려 하지 않고 '급하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부정적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안 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두 분의 회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 혁신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대선을 보름 앞두고도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회동도 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권 교체만이 새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조속히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더 이상 회동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두 사람의 회동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연대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문 후보와 안 전 후보 모두 정치권에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만간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두 사람이 회동, 야권 후보 단일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명선거 기원합니다 바른선거시민모임 전남연합회와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광주본부 회원들은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공명선거 기원 출정식을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흑색선전·인신공격 난무" 안철수 비판 발언 계기

문-박 '네거티브 공방' 자제할까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진영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대해 "대선에서 흑색선전, 이전투구,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대선전 양상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4일 박, 문 후보진영의 '흠집내기' 공방은 점입가경의 상황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를 안은 것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문 후보의 첫 TV광고에 등장하는 '고가' 의자와 안경, 양말도 네거티브 소품으로 삼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3년간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정장을 입었다"면서 공격했고, 박 후보의 동생 소유 빌딩에 입주한 룸살롱 문제, 5촌 조카의 살인 의혹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중도·무당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안 전 후보가 이 같은 대선전 양상을 비판하면서 두 후보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됐다. 우선,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는 박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공방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잘 됐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박 후보 최측근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대 측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전 후보의 비판이 고마운 측면도 있다고 관단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 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사실로 남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흑색선전이지만 인사청문회 기준에 맞춰서 검증하는 것은 정당한 검증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당장 이날도 '박정희 청와대 금고'를 거론하며 공격기조를 이어갔다.

박 후보 측도 당장은 상대 측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지만 선거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 공격 양상에 따라 또는 수집한 상대 후보 약점의 폭발력에 따라 언제든지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범야권 공동선거운동 기구

문측 '대통합 국민연대' 결성

정당·학계·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 대거 참여

담쟁이캠프 선대본부장에 김부겸·박영선·이인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이르면 5일 범야권의 공동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한 기구인 '대통합 국민연대'를 결성키로 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4일 서울 당사 브리핑에서 "정당·학계·시민사회·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를 총망라한 대통합 국민연대가 늦어도 6일까지 결성된다"며 "명칭은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대선 기간 공동 선거운동과 대선 이후 정치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연대에는 문 후보의 '담쟁이캠프'는 물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단일화 중재역을 자임한 재야 시민사회 인사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 측은 백의종군을 거론하며 개인적 선거지원 활동에 비중을 둬왔기 때문에 국민연대에 참여하더라도 강하게 결합하기보다는 느슨하게 연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후보 측은 담쟁이캠프의 상임선대본부장에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이인영 의원을, 상임고문에 정세균 전 당대표를 각각 선임하고 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문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후 국민연대 결성을 염두에 두고 총사퇴했지만 국민연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백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공동선대위원장단 사퇴 선대위 운영과정에서 실무적 문제도 발생해 밀도 있는 선대위 활동을 위해 선대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 "박정희 청와대 금고 실체 밝혀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과거사를 매개로 한 검증 공세를 이어 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26 이전까지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금고1과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금고2가 있었다고 한다"며 "김정렴 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금고1은 30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이른바 통치자금을 보관하던 비자금 저수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계원 전 비서실장은 '금고1에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추리하는 것이 억측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금고1에 들어 있던 내용물과 비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있었다면 어디다 썼는지 박 후보가 분명히 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후보의) 직계형제 재산은 4600억원, 외사촌 일가를 포함한 5촌 이내 재산은 8800억원"이라며 "강탈한 재산인 정수장학재단, 영남대·육영재단은 법인 성격이지만 박 후보의 지배를 받는 2조8000억원 규모 재산으로, 합치면 4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日 극우세력 文 캠프에 말뚝 테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4일 일본의 한 극우정당 대표가 문 후보의 대일 외교공약에 반발해 선대위 캠프에 말뚝을 보내는 테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여의도 문 후보의 시민캠프 사무실로 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 말뚝이 동봉된 소포가 배달됐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일본 도쿄에 있는 유신정당·신풍(維新政黨·新風) 스즈키 노부유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일본 국제 스피드우편으로 배달됐다.

이 인사는 한글로 번역된 편지에서 "문재인이 제시한 '대일 5대 역사현안'은 절대로 인정을 받지 않는다"며 독도 영유권·군 위안부·일본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이어 "모두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며 "동봉한 박 전 대통령의 초상을 액(액자)에 넣어서 매일 아침 예배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선대위는 이 사건을 한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말뚝 테러로 규정하며, 일본 정부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1. 모집대상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종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2. 특전(무료)
-교재/프린트물
-매월 회식/임장활동 참가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평생 교육/권리분석 혜택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3. 교육기간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터디

4. 교육내용
-지분물건 가장임차인등 특수물건
-NPL(부실채권)물건
-실전사례 중심 스터디

5. 회비
-현금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 수기동 [근린시설 4층] ☜	☞ 숙박시설 [치평동] ☜
대652㎡,건2387㎡	대704㎡,건2042㎡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나주남평 [주유소] ☜	☞ 신안압해 [횟집,판매시설] ☜
대4428㎡,건553㎡	대4706㎡,건1123㎡
감정가 10억6천	감정가 18억
최저가 6억8천	최저가 10억
☞ 전북김제 [물류센터] ☜	☞ 전주시덕진구[유흥주점] ☜
대8076m2,건5004m2	대665㎡,건988㎡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 화순이양 [공장] ☜	☞ 보성읍 [상가] ☜
대6536㎡,건2056㎡	대685㎡,건763㎡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 충장로 [근린주택] ☜	☞ 목포대양동 [수양관] ☜
대215㎡,건306㎡	대1786㎡,건408㎡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 화정동 [청기와예식장]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장] ☜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목포 상동[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무안 망운[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방[공장]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m2,2628m2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광산구 신창동[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광산구 월계동[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북구 용전동[공장] 대700평 건423평 감정22억7천 최저가14억6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